SAMC | LAW REVISION

1.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까지 첨부서류 전자제출 확대

관세청은 13일부터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반송신고나 정정신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세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연간 39만 건의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약 156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 중이며, 시행중인 수출입신고까지 더하면 총 800여억 원의 수출입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ad More

2.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 추가

기획재정부는 관세감면 및 경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을 79개 품목에서 68개 품목으로 조정한다. 또 관세를 경감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이용 기자재 중 유리관 등 53개 품목을 재외하고, 단일 진공관을 경감 대상에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11월 2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유압펌프, 다이캐스팅 성형기, 고속가공기 등 14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Read More

3. EU, 반덤핑 관련 규정 개정안 합의 연내 발효?

KOTRA는 EU의회와 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집행위가 제안한 반덤핑·반보조금 관련 규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EU 3개 입법기관이 모두 반덤핑·반보조금 규정 개정에 합의해 개정안은 연내 발효하고 2018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KOTRA는 그동안 EU가 역외국産 저가수입상품으로 역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방어 수단으로 반덤핑·반보조금 규정의 강화를 논의해왔으며, 기업 이익 및 일자리 감소 문제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REACH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서두르세요

EU의 화학제품 등록기한이 내년 5월까지로 마감까지 수개월밖에 남지 않아 EU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등록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화학제품 등록규정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ECHA에 등록해야 하는데, 1~100톤 규모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물질은 내년 5월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ACH 등록절차가 행정 부담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 현지 중소기업에서는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수입 자체가 중단 될 가능성도 있다.

Read More

2. 100일도 채 안 남은 평창 올림픽, '신속통관 지원'에 사활

지구촌 축제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 대회 관계자 등 약 5만명과 외국인 관람객 약 15만명 외에 화물 4.2만톤, 수하물 937톤, 촬영 목적 등 특수차량 73대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감면, 요건확인 등 빠르고 정확한 통관지원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관세청은 중점 추진 과제를 총 3단계(대회준비, 참가자·물자 반입, 대회 개최)로 구분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회 기간에는 세관별 통관지원팀을 집중 운영하여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Read More

3. 정부, 대만·태국·UAE産 PET필름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기획재정부는 올 4월 1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를 개시한 대만·태국·UAE産 PET 필름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PET필름(HSK 제3920.62-0000호, 제3920.69-0000호)은 내압성, 가스 차단성이 좋아 탄산 압력에도 잘 버티며, 투명도와 벽면 강도가 높아 생수, 알코올, 음료 등을 담는 용기 제조에 자주 쓰인다. 부과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원산지 증명절차 개선해 FTA 활용 늘린다

관세청은 11월 14일 원산지 제도 활용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주제로 '2017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와 WTO,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전문가, 주한 대사관 관계관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통관 애로와 원산지 검증 마찰을 해결할 대안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e-C/O)의 세계적인 도입 현황과 검증절차 및 사례'를 공유했다. 참여 국내기업이 실제 FTA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원산지증명절차의 개선방향 및 경험을 논의했다. Read More

2. 美없는 경제주도권 전쟁…中주도 RCEP vs 日선봉 CPTPP

미국의 탈퇴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TPP가 최근 회생 발판을 마련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주도권 싸움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일본과 뉴질랜드 등 11개 TTP 가입국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협상을 벌여 미국 없이 '포괄적, 점진적 TPP'(CPTPP)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TPP가 미국의 탈퇴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는 전환점이다. 아울러 중국이 아태 지역에 자국 주도의 경제질서를 이식할 가능성에 대한 돌출 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ad More

3. '자유무역 · 메가 FTA 강화' 새로운 통상정책 도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 연구원은 11월 6일 '자유롭고 포용적인 통상을 위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2017 통상 국제컨퍼런스'를 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등의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포용적 통상정책과 글로벌 통상의 미래'를 주제로 브랜다이즈대 피터 패트리 교수는 아·태 지역을 주축으로 TPP, RCEP등 지역 간 무역 협정을 추진해 역내 무역 자유화에 속도를 더하고 앞으로 통상 규범을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